

# 旌善 아리랑 考

張 瑄 鎭

- I. 序 言
- II. 本 論
  - 1. 先行研究
    - 1-1 아리랑에 關한 先行研究
    - 1-2 旌善 아리랑의 起源說
    - 1-3 旌善 아리랑의 先行研究
  - 2. 旌善 아리랑 考
    - 2-1 旌善 畝음 아리랑의 特徵
    - 2-2 旌善 아리랑 歌詞속의 人間像
    - 2-2 旌善 아리랑의 主題
- III. 結 言

## I. 序 言

旌善 아리랑은 우리 民族이 불러 온 20餘種의 아리랑 가운데서도 몇가지 特徵이 있다.

첫째 : 旌善아리랑은 起源을 歷史와 結付시키고 있다. 元來 民謠란 郭沫若의 比喩같이 「바람처럼 어디에서, 어떻게 생겼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이지만, 旌善아리랑은 歷史와 結付시키고 있다. 萬若 이것이 確實해 진다면 研究 角度가 달라 지겠다.

둘째 : 旌善아리랑은 基本型和 畝음(辭說)型的 두 種類가 있다. 이 가운데 畝음型은 다른 民謠에 比해 어떤 特徵이 있을 것이다.

셋째 : 歌詞가 豊富하다. 現在 500餘首가 採錄되어 있다. 一般(他地方) 아리랑은 時流性이 強한데 旌善아리랑은 愛情을 읊은 抒情的인 面이 強하다.

이러한 特徵을 考察하고, 歌詞를 文學的인 面에서, B. Berelson의 內容分析法을 援用, 그 속의 民衆의 生活相을 考察하고자 한다.

## II. 本 論

### 1. 先行研究

#### 1-1 아리랑에 關한 先行研究

아리랑의 起源이나 名稱에 대한 先行研究가 이미 상당히 이루어 졌다<sup>1)</sup>  
첫째 : 歷史的 關聯이나, 地名, 古語에서 起源, 名稱을 찾으려는 古代起  
源說이다.

五年春正月. 龍見閔英井. 右脇誕生女兒. 老嫗見而異之. 收養之. 以井  
名之. 及長有德容. 始祖聞之. 納以爲妃. 有賢行. 能內輔. 時人謂之二聖.

十七年. 王巡撫六部 妃閔英從焉 勸督農桑 以盡地利. (三國史記 卷一  
新羅本記 第一)

이러한 三國史記(三國遺事에도 閔英의 記錄이 있다)의 記錄에서 보아  
이 때에 閔英을 稱頌한 노래가 불리어 졌고, 閔英(娥利英)에서 <아리랑>  
의 由來와 名稱을 찾으려 하고 있다.

또 地名으로 보아 <아리랑 고개>를 <樂浪(알라)고개>라 보고, 樂浪의  
政治的 南界인 慈悲嶺(洞仙嶺의 고개) 地名에서 <아리랑>의 由來를 찾고  
있다.<sup>2)</sup>

둘째 : 大院君의 景福宮 修築役事와, 그 뒤의 開化 過程에서 由來했다는  
口碑의인 여러 面에서 說明되는 近代起源說이 있다.

景福宮 修築當時에 생겼다는 <我難離, 我離娘, 我耳聾, 俄美日英>등의  
語源상으로 說明과, 日帝虐政에서 귀머거리 병어리가 되어야 保身할 수

1) ① 金志淵: 朝鮮民謠 아리랑: 1940 朝鮮 151號 p.40.

② 崔載億: 韓國民謠研究: 1969 光云電子工大論文集 pp.64~70.

③ 任東權: 韓國民謠研究(아리랑考): 宣明文化社 1974. pp.363~378.

④ 李丙燾: 아리랑曲의 由來: 書齋餘滴(大學教授隨筆集 p.76. 任東權 韓國  
民謠研究 pp.369~70 參照)

⑤ 梁柱東: 아리랑考: 國學研究論叢 p.269.

⑥ 元勳義: 아리랑系語의 造語論的 考察 1978.

關東鄉土文化研究 Vol. I. pp.85~105.

2) 李丙燾: 아리랑曲의 由來: 書齋餘滴(大學教授 隨筆集 p.76.)

있다는 〈啞而龔〉의 口碑的인 起源說이 있다.

셋째 : 〈아리랑〉의 語源的인 考證으로, 古地名들에 〈알·아리·아루·오리〉 등이 있음으로 보아, 〈아리랑 고개〉는 〈아리령(嶺)〉의 音轉이며 그 原義는 〈부리嶺〉·〈곶嶺〉이고, 嶺→울→아리→아리랑으로 音轉한 것이 라고 한다.<sup>3)</sup>

넷째 : 國語造語的 處地에서 〈아리랑〉은 〈아리/ㄹ-ㄹ/-양/〉과 같이 形態가 分析되는데 〈아리〉를 〈알ㅎ(苦·痛)〉 〈알꼭다(痛苦)〉 〈알히다(疼痛)〉등의 原語에서 派生된 語幹으로 보았다. 〈-ㄹ〉은 〈I系〉 語幹形成 接辭이고, 〈-양〉은 〈'η〉系 語幹形成 接辭가 加重接尾된 語形으로 보고, 〈아리랑〉을 國語造語論的인 面에서 語義는 〈아린 것·쓰라림·괴로움·苦難〉등을 뜻한다. 따라서 〈아리다〉라는 語辭가 〈알ㅎ다·알꼭다·알히다〉등에서 派生된 時期, 卽, 李朝中期 以前으로 보고, 旌善아리랑의 歌詞中에 「무으다(築造)」 「남에」와 같은 李朝의 古語가 쓰이고 있는 根據때문에 「정선아리랑」의 起源을 李朝中期 前後로 잡는다는 說이 있다.<sup>4)</sup>

다섯째 : 嶺南樓를 中心한 說話的인 側面에서 說明되는 先行研究들이 있다.

이들 先行研究의 內容上으로는 史實, 說話, 口碑的인 面과, 言語學的인 面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地名이나, 古語的인 面에서 다룬 것은, 漢字音의 音轉現象的인 面에서 보았기에 當時의 發音과 漢字表記의 關係가 問題된다.

〈아리랑〉에 關한 研究는, 種類, 形式, 內容 韻律的인 面, 歌詞의 分析, 社會·民俗學的인 面등 多方面의 研究가 進行되고 있다.

### 1~2 旌善아리랑의 起源說

旌善아리랑의 起源을 歷史와 結付시키고 있다. 旌善郡誌(1979年刊)에 依하면, 南面 樂同里에 居七賢洞과 伯夷山이 있다. 李氏朝鮮이 建國되고 高麗가 나라를 잃으매, 麗朝 舊臣인, 採薇軒, 全五倫, 樹隱 金冲漢, 都摠

3) 梁柱東: 아리랑考: 國學研究論叢 p.260.

4) 元勳義: 아리랑系語 造語論的 考察: 關東文化研究 Vol.1. p.104.

制 高天祐, 尊菴 李遂生, 黃衣翁 申晏, 邊貴樹, 金璋等 일곱 忠臣들은 不仕二君의 節義를 지키기 위하여 松都에서 隱身하다가, 旌善으로 隱居地를 옮겼다 한다. 草根木皮로 延命하며, 每日 山頂에 올라 故鄉을 望拜하며 痛哭하고, 亡國의 恨과, 悲痛한 心情을 律唱으로 부르던 것을 地方의 선비들이 뜻말로 옮겨 隣近에 傳해 저, 旌善民謠 아라리의 始初가 되었다 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高麗遺臣들의 漢詩가 남아 있고, 杜門洞書院 奉安錄에 記錄되어 있다. 지금도 杜門洞書院에서 享祭되고 있다.<sup>5)</sup>

이와 같이 旌善아리랑의 起源을 歷史와 結付시켜 說明되고 있는 點이 他地方의 아리랑과는 다르다. 그러나 律唱이 곧 現在의 民謠로 되었다는 것은 口碑의인 것 뿐이다. 元來에 아리랑과 같은 曲調가 있었고, 律唱으로 불리던 것이, 뜻말로 옮겨져 隣近에 傳播될 때, 이 曲調에 얹혀 불리었는지 모른다. 旌善地方의 아리랑을 地方民들은 〈旌善아라리〉 또는 〈아리라〉라 부르고 있는 것도 他地方과는 다른 點이다.

### 1-3 旌善아리랑의 先行研究

旌善아리랑은 本調아리랑과 같은 型의 基本型과 억음(辭說)으로 된 억음아리랑의 두 種類가 있다.

이 旌善아리랑에 關해서 關東鄉土文化研究所(所長 徐丙夏: 春川教育大學)에서 集中的으로 研究되어 「關東鄉土文化研究」誌 1.2.3輯에 다음과 같은 先行研究가 있다.

1. 關東地方의 民謠에 關한 研究                      徐丙夏 Vol.1  
—旌善아리랑을 中心으로—
2. 旌善아리랑의 리듬 構造                              朴在薰 Vol.1  
—音節과 리듬과의 關係를 中心으로—
3. 旌善아리랑의 謠詞에 關한 研究 1.2              徐丙夏 Vol.2,3
4. 旌善아리랑의 原流考                                朴在薰 Vol.2  
—가락을 中心으로—
5. 旌善아리랑의 音樂의 特徵                        朴在薰 Vol.3
6. ‘아리랑’系語의 造語論의 考察                  元勳義 Vol.1

5) 旌善郡誌. 1978.2. pp.456~7.

위의 先行研究들에서 다음과 같이 結論짓고 있다.

- ① 旌善아리랑은 謠詞의 길이로만 볼 때, 基本型, 漢詩型, 中間型, 辭說型이 있다. 이 形態의인 面에서 考察한 때, 漢詩型에서 基本型으로 되고, 다시 辭說型으로 形態가 分化되어 갔다. (徐丙夏): Vol. 1. p. 24.
- ② 音樂的인 面에서 「旌善아리랑의 리듬 構造」를 分析한 結果로, 基本型의 리듬이 漢詩型에 그 바탕을 둔 것으로 보아, 旌善아리랑은 리듬의 側面에서 볼 때 漢詩型에서 派生한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朴在薰) Vol. 3. p. 114.
- ③ 旌善아리랑의 漢詩型的 音節과 리듬이, 8/9拍子 8마디로 構成되어 있어, 이는 漢詩의 律唱 形態와 類似하다(朴在薰) Vol. 1. p. 71.

위의 結果로 旌善아리랑의 形態 및 分化過程이나, 리듬의 構造上으로 봐서, 旌善아리랑은 漢詩의 律唱이 變異 發展되어 왔다는 것이다. 여기에 歷史的 起源說<sup>6)</sup>을 結付시켜 보아도 좋겠다.

## 2. 旌善아리랑 歌詞속의 人間像

### 2-1 旌善아리랑의 特徵

[1] 우리 民謠는 歌詞의 길이와 內容上으로 보아, 單章長型, 單章短型, 分章長型, 畝(辭說)型 등으로 分類할 수 있겠다.

單章長型은 大體로 敘事的인 內容으로 노래에 즐거리가 있어, 한 즐거리를 노래하기에 形式이 길어진다. <배틀歌, 시집살이謠, 戒女歌 地神謠기> 등이 이에 屬한다.

單章短型은 한 內容을 짧은 辭說로 노래한 것이다. 童謠들이 여기 屬한다.

分章長型은 各章은 그것만으로 獨自的인 구실을 한다. 한 章으로 意味傳達이 되는 것은 短章短型和 같다. 그러나 때로는 前後의 연락을 가짐으로 無限히 길어질 수 있다. 一般的으로 널리 불려지는 辭說이 있기는 하나, 前後 順序가 꼭 一定해 있지 않고, 唱者의 氣分이나, 能力에 따라 無

6) 高麗遺臣들이 旌善(居七賢洞)으로 隱居하여, 亡國의 限과, 悲痛한 心情을 律唱으로 부르던 것이 정선 아리랑의 起源이라는 說.

限히 길어질 수 있다. 移秧歌와 같은 農謠나 漁夫歌· 뱃노래, 췌지나칭 칭, 강강술래 등이 이에 屬한다.

分章式長型은 卽興的으로 辭說을 만들어 부르는 融通性이 있고, 後歎이 붙기도 한다. “아리랑(本調 아리랑)類는 分章式 長歌에 屬한다.

〔2〕旌善아리랑은 本調(서울)아리랑과 같은 2句1行 2行1聯으로 한 首를 이루고, 6語2行의 後歎이 붙는 「基本型」과 基本型的 2行一聯중에서, 空行의 第1句가 辭說化하여 길어진 「워음(辭說)아리랑」으로 가른다. 이 「워음아리랑」은 他 地方의 아리랑에는 없는 旌善아리랑에만 있는 型態이다.

例 基本型: 아우라지 뱃사공아 배좀 건너 주게  
짜리꿀 울동백이 다 떨어 진다.

後歎: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고개로 날 넘겨주게

워음型: 우리집 서방님은 잘났던지 못났던지  
엷어매고 짙어매고 장치다리 품배팔이  
노가지나무 지개우에다 엷전석양 결머지고  
강릉삼척에 소금사리 가셨는데  
白伏嶺 구비구비 부디 잘 다녀 오세요.

後歎: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旌善워음아리랑은 한 章에 이야기 줄거리가 있음은 單章長型과 비슷하고, 때로는 워음으로만 계속 노래 부름은 分章長型과 같은 點도 있다. 그러나, 實際, 노래(唱)할 때, 旌善 基本 아리랑과 워음 아리랑을 섞어 부르기는 하되 워음 아리랑만 繼續해 부르는 境遇는 흔하지 않다.

〔3〕旌善 워음 아리랑을 모두 諧謔에 分類하는 사람도 있으나, 歌詞內容을 다음과 같이 主題別로 分類할 수 있겠다.

主 題 別	夫婦愛	姑婦關係	猥褻	自嘆	訓戒	身勢打令	戀情	諧謔其他	計
首 數	13	5	7	5	7	4	10	7	58

資料 58首를 9個 主題로 分類했다. 本來는 같은 流의 노래가 結末만 바뀌어서, 主題가 달라지는 境遇가 많다, 그러나 이런 境遇도 일단 主題를 같았다. 그런데 이 비슷한 辭說類로서 主題가 바뀌게 되는 것을, 辭說의 흐름으로만 分類할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첫 辭說의 같은 것 끼리만 分類한다면.

- |                |      |
|----------------|------|
| 1. 江原道 金剛山     | (5首) |
| 2. 네 七字나 내 八字나 | (4首) |
| 2. 旌善邑內 물때밤아   | (7首) |
| 4. 산진때야 수진때야   | (4首) |
| 5. 우리집 시어머니    | (4首) |
| 6. 당신이 날마다고    | (5首) |
| 7. 니나 내나 죽어지면  | (5首) |
| 8. 우리집 서방님은    | (7首) |
| 9. 홀일뎀에 시집가서   | (2首) |
| 10. 우리집 시어머니   | (4首) |
| 11. 사절치기 강낭밤   | (2首) |
| 12. 其 他        | (9首) |
- (計58首)

등으로 分類할 수 있다. 이것은 傳承過程에서 變異되는 過程을 살필 수 있는 資料가 된다.

[4] 本來 한 노래였을 것이 傳承過程(傳播過程)에서 變移된 것으로 봐야할 歌詞의 例를 다음과 같이 考察할 수 있다.

- 1) “우리집에 서방님은 잘났던지 못났던지”  
 엮어매고 찌거매고 장치다리 공배팔이  
 노가지나무 지개우에다 엽전석냥 걸머지고  
 강릉·삼척에 소금사러 가셨는데  
 “白伏嶺 구비구비 루더 잘 다녀 오세요.”
- 2) “우리때의 서방님은 잘났던지 못났던지”  
 엮어매고 찌거매고 장치나리 공배팔이 혈께눈에  
 노가지나무 뼈덕지개 부꿈며 세쪼각을 새뿔에  
 바싹매달고 엽전석냥 옷질지고 강릉삼척으로  
 소금사러 가셨는데  
 “白伏嶺 구비구비 루더 잘 다녀 오세요“

- 3) 우리집 서방님은 잘났던지 못났던지  
 씨구씨구 모제씨구 째구깁구 머리깁구  
 밀맨미투리 딱거머신구 매물볶음떡  
 새반지기 한집잔뜩 걸머지구 옷집지구  
 덧집지구 대화방임 원주대범루 삼춘에  
 도부갔는데  
 “白伏嶽 구비구비 부더 잘 다녀 오세요”
- 4) 우리택에 서방님은 잘났던지 못났던지  
 안안팍 곱사등이 한짜다리 장치다리  
 한짜팔은 폼배팔이 북통배지 장구통대가리  
 비루턱은 당나귀에 은전한집 째어지고  
 영월청진 꼴뚜바위에 화톳재치러 갔는데  
 이십공산 삼십대비만 펄펄 일어주게
- 5) 우리택의 서방님은 잘났던지 못났던지  
 눈한짝 까지고 다리한짝 뿌러지고  
 폼배팔이 매장치고 조선팔도 구경을 갔는데  
 삼사촌만 나두고는 내배만 타리오게
- 6) 우리택의 서방님은 잘났던지 못났던지  
 서산나구 호안장 이어타구 함경도  
 부령청진 나남진도 화투튀진 골패망탈구  
 주색잡기 득패치루 갔는데  
 삼사 오륙은 아니거들랑 내배 타루오게.
- 7) 우리택에 서방님은 잘났던지 못났던지  
 깡구깡구 머티깡구 씨구씨구 모자씨구  
 입구입구 양복입구 치구치구 각반치구  
 신구신구 구두신구 돈 한집 잔뜩 걸머지구  
 서울장안 종로거리루 화투치루 갔는데  
 상하동 초군님베들  
 삼사오륙은 아니거들랑 내배 타루오게.

위의 예 가운데 1)의 歌詞가 <우리택 서방님> 類의 本來것인 것 같다.  
 (現在 가장 많이 불리어 지고, “엮음 아리랑” 曲의 歌詞로 採擇되어 있다)  
 이 엮음 아리랑은, 基本型 앞행이 辭說化하였음을 알 수 있다. 基本型  
 에서 엮음으로 되는 辭說調가 大部分 3.4調 또는 4.4調로 되어 있어 대단  
 히 律調의이고 辭說化된 部分이 諧謔的이다.

例 1), 2)는 같은 노래로 2)의 밑줄 친 部分이 敷衍되어 있다. 例 1), 2)는 病身스런 男便으로 描寫되어 있고, 例 3)은 도부(行商) 나가는 男便이 머리 깎고, 모자 쓰고, 行裝을 단단히 차리고 나서는 사람으로 描寫되어 있다. 例 1), 2), 3)은 다같이 “白伏巖 구비 구비 부디 잘 다녀 오세요”로 男便의 無事를 祝願하고 있는 主題는 같다.

또 例 1), 2)와 例 4)를 比較하면 男便描寫는 같은데 男便의 行爲가 장사가 아니라 화투치러 간 것이 다르나, 例 4)도 男便을 爲한 祝願이라는 點에서는 같은 노래다.

例 3)과 7)은 男便의 描寫는 같은데 主題가 例 7)에서는 上, 下洞 樵軍 넙네들 三, 四, 五, 六은 아니거들랑 내배 타러 오게”로 달라져 猥褻的으로 바꿨다.

例 5)와 1), 2)는 男便 描寫는 같으나 例 5)는 “結末에 가서 삼사촌만 나두고는 내배만 타러 오게”로 主題가 바뀌었다. 例 6)도 같다. 例 6), 7)은 例 5)의 影響을 받았음이 分明하다. “삼사 오륙은 아니거들랑”의 三, 四, 五, 六은 數辭의 三, 四, 五, 六이 아니고, 例 5)의 “三四寸만 나두고는 오라”는 三, 四寸에서 온 것임은 分明 하다. 相互 影響을 미치고 있다.

民謠의 傳承·傳播는 하나의 運動이므로 이 같은 變化를 가져 온다. 民謠의 變化는 傳承·傳播의 過程에서 誤聽 誤解에서 오는 變化나, 意識的인 改作, 擴充, 要約 등에서 오는 變化다.

앞에서 본 例 2)는 例 1)보다 擴充된데서 오는 變化이고, 例 3)은 例 1), 2)에서 意識的인 變化라 볼 수 있다. 男便을 不具가 아닌 正常人으로 表現하였다.

例 5)는 例 1)이나, 2)에서 男便의 出他됨에 獨守空房을 매꾸어 보려는 不貞한 女人으로 主題가 猥褻的으로 바꿨다. 例 6)도 같다.

여기 例를 든 例 1)에서 7)까지 7首의 形成 過程에서, 例 1)을 本來의 것으로 假定한다면, 變化過程에 相互 影響의 자취를 볼 수 있다.

例 4)의 男便의 描寫가 例 2)보다 좀더 誇張되어 “북통배지 장구통 대가리”로 못생긴 쪽으로 類推되었고, 例 4)에서는 “영월 청진 골두바우에

화투 재치러 갔는데” 比해서 例 6)에서도 酒色雜技를 더 擴大하여 “부령 청진 나남진도 화투, 튀진, 골패 땅딸구 주색잡기 특패 치루 갔다”고 하여 “화투”에서 類推된 雜技들을 모두 列擧하였다.

例 1), 2), 3)은 相互 影響을 받았고, 例 4)의 容貌 描寫는 例 1), 2)에 影響을 받았고, 또 “화투 치루 갔다”는 것은 例 6), 7)에 影響을 미쳤다.

이 같은 相互 影響은 “江原道 金剛山”類의 5首, “旌善邑內 물래방아”類 7首, “당신이 날마다고”類 5首 등등을 比較해도 內容에 있어 서로 影響을 미치고 있다. 本來는 하나였을 것이 諧謔的 技法의 發揮에서 辭說이 擴張되고, 類推나 思考의 飛躍에서 主題가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해도, 發生的인 處地에서 보면 同類의 것으로 分類되겠다.

旌善 欸음 아리랑 58首를 이 비슷한 類型으로 分類하면 其他에 묶을 수 있는 9首를 합해 14, 5種으로 分類가 될 것이다. 따라서 現在 採錄된 60首 程度의 欸음 아리랑의 主題를 15種 程度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

## 2-2 旌善아리랑 그 애달픔과 恨

旌善아리랑이 언제부터 불리어 왔으며, ‘아리랑’의 意味가 무엇인가는 크게 問題삼을 것은 없다. 오늘날 아리랑을 부르는 사람들이나 또, 過去 불려 왔던 사람들이 아리랑이 가지는 意味나, 生成 當時의 氣分을 생각하며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가락이나, 歌詞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불렀을 것이며, 또 부른다.

民謠에 있던 重要한 것은 生成 動機나 意味보다 恒常 現在에 있어 民衆의 受容態度가 問題인 것이다. 民謠는 集團의 共同心音의 表現이기 때문에 大衆의 共鳴 共感에 依한 支持로 生命力을 가진다. 따라서 過去의 民謠에서는 過去의 思想·感情과 生活相이 透影되었고, 現在의 民謠에는 現代의 生活相이 反映되는 것이다.

“아리랑”이 옛날부터 오늘까지 많은 사람들에 依해 불리어지고 있다는 事實이 重要하다. 勿論 時流性이 強하여, 時代의 흐름에 따라 歌詞의 消滅 變化는 있지만 노래 불리어 진다는 事實이 重要하다.

民謠는 노래이기에 〈가락〉을 無視하고 論할 수 없다.

旌善아리랑의 聲域은 他地方의 民謠에 比하여 一般的으로 그 聲域이 短7度의 좁은 편이다. 이는 旌善아리랑이 他民謠에 比하여 土俗의이며 生活謠로서 繼承 愛唱되어 왔음을 말한다.<sup>7)</sup>

旌善아리랑은 가락이 높어지고 哀恨찬 목소리가 구성지다<sup>8)</sup> 특히 엮음 아리랑은 辭說을 다급히 엮어 내려오다가 끝에 가서 本調아리랑의 가락과 같이 스스로 높아지는 緩急의 멋은 旌善아리랑에만 있는 特色이다. 이 哀切한 가락이 다른 아리랑과는 달리 情感的이기 때문에 우리들 가슴을 울려 오는지 모른다.

여기에서는 音樂的인 面은 且置하고 文學的인 歌詞分析을 通하여 우리 의 生活相을 찾고자 한다.

歌詞分析은 B. Berlson의 內容分析(Content Analysis)의 方法을 援用한다.<sup>9)</sup>

이 內容分析 方法은 元來 Mass-media인 新聞·雜誌 宣傳物 Radio, T. V 등의 內容分析에 利用했던 方法이다. “內容分析에 있어 重要한 點은 어떤 範疇(Categorie)에 立脚하여 分析해 나갈 것인가에 있다”고 Berlson은 말하고, 다음과 같은 範疇로 大別하여 提示하였다.

1. 무엇을 말하는가(What is Said Category)
2. 어떻게 말하는가(How is Said Category)
3. 누구에게 말하는가(Whom is Said Category)

이런 分類基準은 修辭學에서 比喩的 心像 Imagery의 分類基準으로 다음과 같은 基準을 두고 있는 것과 같다.

1. 文面 : What is Said
  2. 文理 : What is Meant
- }의 關係

7) ① 朴在蕨: 旌善 아리랑의 音樂의 特徵: 關東鄉土文化 研究 Vol.3. p.117.

② 一般的으로 經濟機能的, 社會機能的 民俗音樂은 聲域이 7度以內로 되어 있는 反面, 文化 機能的 民俗音樂은 8度以上の 넓은 聲域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通例이다.

8) 정선아리랑의 바른 唱은 정선 토박이의 구성진 목소리(발성·역양의 뜻인 듯)라야 한다고 한다. (정선아리랑 기능 보유자 金炳河氏談: 정선음 봉양 8리)

9) Berlson, Bernard: Content Analysis in G. Linzy. Hand book of Social Psychology, pp.488~523.

- 3. 媒材·材料材(補助觀念) : Vehicle
- 4. 取意·意味材(元觀念) : Tenor }의 關係

8)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억수장마 길라나,  
萬壽山 검은 구름이 짝 모여든다.

9) 明沙十里가 아니라면은 海棠花는 왜 피나  
暮春三月이 아니라면은 杜鵑새는 왜 우나.

이같이 旌善아리랑은 大體로 對句形式으로 짝지어져 있다. 이 노래는 한 마디로 愁心에 찬 노래다. 結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徵兆가 나타나고 있다. 짝 모여드는 검은 구름을 媒體 Vehicle로 하여 取意 tenor는 不安과 愁心으로 나타나고 있다. 海棠花는 元來 明沙十里에 피어야 제격이다. 杜鵑은 봄에 우는 것이다. 海棠花 杜鵑을 媒材로 하여 自身の 處地가 格에 걸맞지 않게 놓였음을 叙述하였다.

위의 對句를 이룬 노래가 旌善아리랑의 始源을 이루는 노래라고 한다.<sup>10)</sup> 구태여 高麗遺臣들이 國家興亡과 自身들이 處地를 恨嘆하고, 쓰라린 懷抱를 달래며 불렀다고, 意味賦與할 것 없다. 이 노래를 現在 사람의 生活을 額字에 넣어 봐도 좋다. 이 歌詞에서 不安, 焦燥, 그러나 어쩔 수 없이 堪耐해야 할 自身の 안타까운 身勢에의 棼부림을 볼 수 있다. 누구에게 呼訴하는가. Whom is said 바로 自己에게 呼訴하고 있다. 愁心을 노래하고 있다.

10) 오늘 갈런지 來日 갈런지 定數定望 없는데  
맨드라미 울봉숭아는 왜 심어 났나.

11) 西山에 지는 해는 지고 싶어 지나  
情들이고 가시는 입은 가고 싶어 가나.

民謠의 記述에는 人間의 心理描寫가 主流를 이룬다. 하겠나. (特히 短章)언제 떠날지도 모르는 입과 살면서, 맨드라미 봉숭아는 왜 심었는가고 自嘆한다. 같이 보고 살자고 알뜰히 가꾼 꽃밭을 봐도 눈물이 난다. 떠나

10) 旌善아리랑 편찬위원회 “정선아리랑” p.12.

려는 입에게, 가지말라는 뜻을 What is Said 말하되, 直說的으로는 하지 않는다. 멘드라미 봉숭아를 媒材로 하여, 文理는 만류다. 만류가 아니라 所望이다. 그러나 吐說하지 않는 女心은 꽃을 심고, 가꾼 自身의 行爲에 더 큰 恨을 되새긴다.

西山에 지는 해가 順理이듯, 떠나야할 사람은 잡을 수 없는 마음, “情들이고 가시는 입은 가고 싶어 가나”하고 諦念하며 自身을 慰勞하는 心理의 葛藤이 더 恨스럽다.

- 12) 아우라지 배사공아 배준 건너주게  
짜리꼴 울동백이 다 떨어진다.
- 13) 떨어진 동백은 落葉에나 싸이지  
사시장천 임그리워서 나는 못살겠네.
- 14) 汗時뿔산에 곤드레 따주기 임의 맘만같으면  
올같은 흥년에도 봄살아 나지.
- 15) 네 팔자나 내 팔자나 이불 담노 같겠나  
마툼 마툼 장석자리에 깊은 정들자.

위의 12), 13), 14), 15)의 歌詞는 旌善아리랑祭 委員會에서 採譜한 曲의 歌詞이니, 旌善아리랑을 代表할 수 있는 辭說이라 할 수 있다.

江을 사이에 둔 餘糧里의 처녀와 柳川里의 총각이 짜리꼴에 동백 따러 갈 것을 約束한 翌날 갑자기 江물이 불어 건널 수 없음에 이 노래를 부르며 안타까와 했다는 事緣을 가진 노래라고 한다.<sup>11)</sup>

文面 What it Said은 배사공에 배를 건너 달라고 하고 있으나, 文理 What is Meant는 입을 만나고 싶은 안타까움이다. 이 哀切한 心情은 동백꽃을 媒材 Vehicle로 하고 있다. “짜리꼴 울동백이 다 떨어진다”는 二次的 意味 Secondary Meaning의 元觀念 Primary Meaning은 입에 대한 그리움인 것이다.

“떨어진 동백은 落葉에나 쌓이지만 사시장천 임 그리워 못 살겠다”는

11) 정선아리랑祭 委員會編 “정선아리랑” p.37.

詞意속에 입과의 離別에 몸부림치는 女人의 애달픔이 있다.

歌詞 14), 15)는 가난에 허덕이는 아픔이 있다. 汗峙巔山. 곤드레와 딱  
주기 같은 山菜로 延命해야 하는 春窮이지만, 입의 맛만 같다면 그 어려  
운 봄을 살아나겠다고 한다. 여기 取意 tenor는 입의 사랑이다.

火田民들의 困窮한 生活相은 家具는 고사하고, 이불 담요 깔고 잘, 형  
편이 못된다. 마뜩 마뜩 장식자리(새끼를 가늘게 꼬아 엮은 자리)일망정,  
깊은 愛情으로 서로 아끼며 살아 가자는 것이다. 장식자리를 媒材로, 悲  
慘하리만치 어려운 環境이 說明 What is Said 되나, 그것을 뛰어 넘는 强  
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江原道 金剛山 一萬二千峰 八萬九庵子 楡帖寺 法堂뒤에 七星壇 돌우물  
고 八字에 없는, 아들 딸 낳아라고 百日精誠 석달열흘 祈禱 노구메 精誠  
을 맡고, 他關客裡 의로운 사람 팔시마라.

이 노래의 話者가 客地 사람이라면 他鄉살이 의로움에 사무친 하소연이  
며, 原住民이라면 자기보다 나은 處地의 사람의 人情없음을 타이르는 말  
일 게다. 佛前에, 七星前에 致誠하는 것보다 普施에 의한 積善이 더 좋지  
않겠느냐고 說得하려고 한다.

他關살이 하는 사람 팔시를 말라는 이 녀두리 속에, 流浪의 슬픔, 못  
사는 사람의 고달픔, 팔시 받는 서러움이 짙게 깔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살아온 것이 비단 旌善 땅 뿐이었으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았  
으니 누구나가 이런 氣分에는 同調하고 共感이 갔을 것이다. 구슬픈 曲調  
도 曲調려니와 자기 心境을 代辯하는 辭說에 더 마음을 붙였을 것이다.

江原道 金剛山 一萬二千峰 봉우리마다  
海金剛 밀으로 히긋히긋 비는데  
우리님 신퓌은 어디가고 아니 보이냐  
  
旌善邑內 물레방아는 빙글빙글 도는데  
우리郎君 나를 끼고서  
물 줄은 왜 모르냐

“金剛山 一萬二千峰 그 많은 봉우리마다 海金剛 맑은 물에 비치는데,

우리 님은 어대 가고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울먹인다. 내 눈에 저 秀麗한 金剛山 같은 님이 오기뿔 기다리는 女心. 불레방아는 물을 안고 도는데 내 郎君은 나를 끼고서 왜 돌 줄모르나고 몸부림친다.

民謠에서 氣品을 따지는 것은 어리석다. 表現이 俗되다고 민요 속의 詩精神까지 沒却할 수 없다. 眞率한 女心の 赤裸裸한 素朴한 表現이 좋다.

海金剛 밑으로 히끗히끗 보이는 金剛山과 입을 比喻하는 이 技巧, 놀랍다.

당신이 날마다고 울 치고 담 치고 열무김치 소금치고 오이김치 초 치고  
칼보 물 치듯이 똑 떠나가더니  
平昌 八十里 다 못가고서 왜 또 돌아 왔다.

만남의 기쁨과 離別의 서러움은 예나 이제나 마찬가지다.

싫다고 울을 치고, 또 담을 치고 싹 돌아서 가더니, 平昌 八十里를 다 못 가서 날 찾아 되돌아 온 기쁨을 말하고 있다.

表現技巧에 있어서, “울을 치다 담을 치다”에서 二重으로 울과 담을 쳐 놓다의 強調만이 아니라 <치고>에서 類推한 “열무김치 초 치고 배추김치 소금치고”의 “김치”의 <치>와 <치다>를 強調하여 떠날 때의 決意를 強調했음을 보인다.

이렇게 안 울 듯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 왔으니, 그 기쁨이 倍加되었다. 그러나, 表面으로는 「왜 되돌아 왔느냐」고 詰難하고 있다. 이 逆說의 說話法이 “다시는 떠나지 말아 달라”는 呼訴이다.

山진매 水진매야 휘휘칭칭 보라매야  
절끝밑에 풍경달고 풍경밑에 방울달아  
앞南山 불까트리 한마리뿔 툇차가지고  
저 공중에 높이떠서 뱅글뱅글 도는데  
우리집 저 멧덩구리 날 안고 돌 줄 왜 모르나  
  
旌善邑內 불레방아는 일삼삼 삼육十八  
마흔여덟살 수물베개의 허풍선이  
물살을 안고 비빙글 배빙글 도는데  
우리집 서방님은 날안고 돌 줄 왜 모르시나

鄉土의 地理 風土의 自然環境에 따라, 生活樣式이나 氣質, 思考 等に 特色을 갖는다. 意思表現에 있어서도 자기 生活周邊에서 比喻되는 것이 適切하다. 民謠에 그런 것을 흔하게 表現하고 있다. 따라서 民謠는 鄉土의 이다.

그리운 입이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表現도 자기 周邊에서 찾고 있다.

「山진매 水진매가 앞南山 불까토리를 툇 차가지고 저 空中 높이 떠 뱅글 뱅글 도는데 자기집 남편은 자기를 안고 돌 줄을 모른다」고 하소연한다. 「물레방아도 물살을 안고 도는데」木石같은 男便은 그럴 줄을 모르니 안타까워 몸부림이 나는 것이다. 젊은 女人이리라.

매가 평이나, 새를 채 가는 것을 보아 온, 山꾼 사람이 자기 입도 매처럼 채 가서 안고, 空中에서 매가 돌듯, 빙글빙글 돌아 주기를 바라는 마음. 무뚝뚝하고 愛情 表示를 할 줄 모르는 멋없는 사나이보다 大膽하다. 儒敎의인 道德觀念이나 思考는 아랑곳없다. 直說的인 素朴한 表現, 雅訥속에서 民謠의 本色을 찾아볼 수 있다.

世波에 시달린 몸 萬事に 뜻이 없어 忽然히 다 떨치고 靑黎를 의지하여 指向없이 가노라니 風浪은 예와 달라 萬物이 소연한데 해저무는 저녁노을 無心히 바라보며 옛일을 追憶하고 시름없이 있노라니 눈앞에 온갖 것이 모다 시름뿐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 만 주

旌善아리랑의 女人은 무엇 때문에 살아 가고 있을까, 恨을 안고 恨을 되셈으며 살아 온 것이 아닐까. 또 그렇게 살아만 갈 것인가.

恨을 안고, 世波에 시달린 몸이 萬事に 뜻이 없이, 靑黎를 집고, 指向없이 집을 떠나 봐도 시원치 않다.

그 많은 曲折 風浪도 이제는 예와 달라 그저 萬物이 쓸쓸할 뿐이다' 夕陽에 서서 살아 온 길을 되돌아 보아도 앞일을 생각해 봐도 시름 뿐이다. 어찌 이 시름을 매꿀 것인가. 그저 구슬프고 애절한 이 아리랑 한 가락에 마음을 달랠 뿐이 아니겠는가,

2-3 旌善아리랑 歌詞의 主題

旌善아리랑 500餘首中에는 맺힌 恨과 애답음을 노래한 것이 대단히 많다. 그러나 이 民謠를 어떻게 分類할 것인가 問題된다.

民謠의 分類方法은 一定하지 않다. 目的이나, 假說에 따라 다를 수 있다.

旌善아리랑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선 이미 分類되어 있는 것, 즉 旌善아리랑祭 委員會에서 採錄한 516篇의 主題分類과 關東地方의 民謠에 關한研究<sup>12)</sup>에서 主題分類한 것을 比較하여 旌善아리랑의 主題一般을 살펴본다.

I. 旌善아리랑祭 委員會 分類

1. 愁心篇 (24首)
2. 山水篇 (29首)
3. 愛情篇 (310首)
  - ① 初情 (46) ② 早婚 (8) ③ 婚事 (19) ④ 母女 (6) ⑤ 夫婦 (54)
  - ⑥ 相思 (71) ⑦ 熱情 (58) ⑧ 相逢 (13) ⑨ 離別 (35)
4. 處世篇 (80首)
  - ① 勤勉 (14) ② 姑婦 (7) ③ 讚遊 (50) ④ 後悔 (9)
5. 無常篇 (50首)
  - ① 惜老 (23) ② 未忘 (9) ③ 八字 (18)
6. 억음篇 (23首)

以上 6項目으로 크게 나누고 19主題로 分類하였다.

II. 「關東地方의 民謠에 關한 研究」에서의 分類

主題別	人性	諧謔	貧困	自然	無常	孤獨	酒遊	別離	戀情	愛情	性愛	死別	早婚	時流
首數	16	14	8	14	15	11	17	15	21	25	26	5	7	6 計 200首

12) 徐丙夏: 前掲書 p. 36.

이 두 主題分類에 있어, 問題點은 分類對象의 數值上에서, (I)은 516首고, (II)에서는 筆者(徐丙夏)가 採詞한 400首中에서 任意 抽出한 200首다. 「分類에 있어서도 한 諸詞가 두 세 主題에 聯關되어, 分類하기에 애매한 것도 있었고, 더구나 辭說型(워음)에 있어서도 그 辭說 自體가 거의 諧謔的이어서 보기에 따라서는 辭說型 20首 全部를 諧謔에 넣을 수도 있는 것이었으므로 分類表에 나타난 數值가 그렇게 意味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점도 있다. 그러나 이 分類로써 旌善아리랑의 大體的인 傾向이나 內容을 살펴 볼 수 있지 않는가 한다.<sup>13)</sup>

이 두 分類에서 主題가 같은 項目은 「愛情, 早婚, 離別, 無常, 山水(自然)」등이다. 그러나 分類(I)에서는 愛情속에, 早婚, 離別 등을 細分했다.

分類(I), (II)의 같은 主題 項目에 分類된 것도, 그 對象 歌詞가 꼭 同一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分類(I)에서 「愛情」을 노래한 것이 採詞된 516首中 310首로 단연 많다. 그 가운데서도 「相思, 熱情, 相逢」이 132首고, 分類(II)에서 「愛情, 戀情, 性愛」를 습한 것이 72首이고, 여기다 「人情」 16首를 습하면 全體 200首中 절반에 가깝다.

이런 數值를 通례 愛情을 노래한 중에도 戀情, (相思)과 熱情(性愛)를 노래한 것이 많음을 보아 旌善아리랑의 大體的인 傾向은 살펴 수 있다.

諧謔속이 넣을 수 있는 워음(辭說)아리랑도 다시 主題別로 分類할 수 있다. 이 문제는 2-1 워음 아리랑에서 考察하였다.

旌善아리랑은 叙情的인 것이 壓倒的이다. 500餘首가 넘게 歌詞가 採集되었는데 이 중에 叙事的인 것은 거의 없다.

### Ⅲ. 結 言

정선아리랑은 本調아리랑과 같은 基本型和 워음(辭說)型的 두 種類가 있다.

13) 徐丙夏 前掲書 p.36.

아리랑의 語義나 發生過程에 대한 諸論이 있는데, 旌善아리랑은 歷史的 事實에다 生成 起源을 두고 있다.

旌善아리랑은 歌詞가 豊富하여 現在 蒐集된 歌辭가 500餘首나 된다. 이들 歌詞의 內容에 있어 愛情(戀情, 熱情, 猥褻的), 人情을 노래한 것이 壓倒的으로 많고 敘事的인 것은 적다. 또 一般 아리랑은 時流的인 것이 많은데 旌善아리랑에는 時流的인 것이 적다.

억음(辭說)아리랑은 基本型(2行1聯에 後歛이 붙은 것)에 諧謔的인 辭說이 붙어 長型化되었다.

억음아리랑에는 비슷한 類型이 많은데, 이는 內容에 있어서 서로 影響을 미치고 있다. 本來는 한 가지 엮을 것이 諧謔의 發揮에서 辭說이 擴張되고, 類推나 思考의 飛躍에서 主題는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해도, 發生的인 處地에서 보면 同類의 것으로 分類되겠다.

主題面에서 旌善아리랑은 <애달픔과 恨>을 노래하고 있다. 아리랑의 語源을 <아리고 쓰린 것>이라고 한다면 旌善아리랑에 登場되는 <話者>는 어느 면에서나 人生의 <아리고 쓰린 것> 情恨을 읊은 生活相을 볼 수 있다.